

해운운임 곤두박질 속 HMM 매각설... 적기 놓고 '시끌'

해운업계 실적 피크아웃 목소리 “정부 HMM 매각 적기 놓쳐” 지적 산은 잠재 인수 후보군 컨택에 “시장 파악만 한 것, 사실 아냐”

해운업 물동량 둔화 속에서 해운운임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HMM 잠재 매수자들을 상대로 시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운사들의 실적 피크아웃(정점 통과 후 하락)이 현실화하며, 정부가 HMM 매각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8일 기준 전주 대비 136.45포인트 떨어져 1306.8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사상 첫 5100선을 돌파했던 SCFI 지수는 정점을 찍은 뒤 17주 연속 하락했다. 이후 지난 5월 말 18주 만에 반등하며 6월 10일까지 4주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2주 연속 하락세로 반전하며 1263.23포인트를 기록한 2020년 8월 28일 이후 약 27개월여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1월 사상 첫 5100선을 돌파했던 SCFI 지수는 정점을 찍은 뒤 17주 연속 하락했다. /HMM

시장은 해운운임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해소될 긍정 요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신조선박 인도 증가 등이 투자·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물동량은 그만큼 늘지 않기에 연내 SCFI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컨테이너선 수주도 늘어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 해운운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해운업계 분위기 속에서 HMM이 ‘매각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MM의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4% 감소한 11조2414억원, 영업이익은 69.4% 급감한 3조143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HMM 측은 “이전과 같은 해운 치킨게임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향후 운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화물 신규 개발과 냉동·특수내륙 화물 등 고수익 화물을 늘리고, 선박 운용비·연료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HMM 잠재 인수 후보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20.69%), 한국해양진흥공사(19.96%), 신용보증기금(5.02%) 등 공공기관이 주요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어 산업은행의 매각은 HMM에게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SM그룹, LX그룹 등을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당초 HMM 민영화를 천천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해운 업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식에 산업은행은 “HMM 매각과 관련한 시장 상황을 파악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기업과 매각방안 논의 및 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팀 구성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준법위, 관계사 TF와 준법경영 논의

TF장과 간담회 열어... 소통 등 약속

삼성 각 계열사를 이끌어왔던 주요 경영진들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관계사 태스크포스(TF) 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기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정현호 부회장과 삼성물산 김명수 사장, 삼성생명 박종문 부사장이 동석했다.

참가자들은 TF 활동과 관련한 준법 관련 리스크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소통을 약속했다.

한편 삼성은 과거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물산 EPC경쟁력강화, 삼성생명 금융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하고 각 사업별 계열사 총괄을 맡겨왔다. 이재용 회장이 승진 후 삼성그룹 통합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TF 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재웅 기자 juk@

“금융시장 변동성, 세계경제하방 위험 지속”

» 1면 ‘1%대 저성장 경고’서 계속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2% 내외일 때 그보다 낮은 1%대는 경기 둔화 국면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홀로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던 정부도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 흐름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과 부진한 수출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세계경제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2.5%, 한국은행의 2.1% 이전 전망치가 현 경제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될 가능

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내년 경제전망을, 정부는 다음달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등 네 차례 뿐이다.

OECD는 “(한국은)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고금리에 취약할 수 있는 가계·기업 대상 선택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본의 재배분과 기업 간 경쟁 촉진 등 규제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KB 금융그룹 | 권역별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상해질병도 마음건강도 중요하니까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특허청 상표권 획득
(등록번호: 제 40-1846813 호, 2022.3.18)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하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주기는 3,10,15,20,30년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갱신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70396호(2022.06.28~2023.06.2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sure.co.kr • 고객센터 : 1544-0114